

大學내 學生活動的 領域과 方向

金 武 吉

(全北大 教育學科)

I. 序 言

“學生活動과 指導”라는 大主題下的 ‘大學내 學生活動的 領域과 方向’이라는 小主題, 즉 大學生指導計劃 수립의 단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問題는 다음과 같다. 즉 大學教育에서 학생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教育內容으로 理論的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들 內容이 실제로 어느 정도 부과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들 內容을 어떠한 基準에 따라 선택하게 되고, 이들 活動에서 수행해야 할 課業은 어떠한 것이며, 이들 과업을 效率的으로 수행하여 가도록 指導할 수 있는 計劃樹立의 方案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探索하는 일이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첫째 大學教育內容의 理論的 構造를 살펴봄으로써 가능한 內容들을 포괄할 수 있는 模型을 찾고, 둘째로 이 理論構造에 따라 現 大學의 教育內容, 學生活動, 課業 내지 目標와 指導計劃을 고찰하고, 셋째로 앞에서 논의한 內容을 기초로 하여 大學生 指導戰略을 수립하기 위한 模型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II. 大學教育內容

전통적으로 大學教育內容은 教科內容이 주축

이 되고 課外活動은 教育계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大學教育計劃下에서 目標를 설정하고 計劃을 수립하여 그 결과로 나타난 教育效果를 평가하는 일은 教科活動에 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대학의 教育目的에서 제시되고 있는 學問研究, 健全한 思想과 人格陶冶, 指導者的 資質의 함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學問研究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기타 要因에 함축되어 있는 情意的인 領域이 소홀히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大學教育內容이 대학의 教育目的에 합치하도록 계획·운영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教育內容의 관점, 즉 文化的으로 定義된 意味의 탐색과 道具的·客觀的인 世界의 탐색을 강조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보다 個人的인 意味의 탐색과 自己擴充을 위한 주관적 세계의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教育計劃으로 확장하여 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大學教育計劃에서 教科課程뿐만이 아니라 課外活動의 內容도 구조화하여 학생들이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情意的인 領域에서도 전진한 방향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는 機會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물론 이 관점은 오늘날 教育課程 理論家들간에도 教育에서 工學的 合理性을 강조하느냐 인

間的 成長發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다. 예컨대 Johnson(1970)과 같은 학자는 순수하게 知的이고 學問的인 내용을 教育內容으로 계획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Starratt(1974)는 지적이고 학문적인 것 외에 他人間的 變因을 고려한 教育計劃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Johnson 등의 知性이나 學問 중심의 관점은 一次元的 觀點으로 현대 學校教育에서 학생의 情意的인 면을 소홀히 하게 하는 限界點이 되고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代案으로 Starratt 등은 人間的 教育課程理論에서 많은 示唆點을 제시한다. 그의 견해는 특히 全人的 教育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學習經驗을 教授-學習은 물론 生活指導活動을 통하여 지도해야 할 必要性을 이론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대학내 學生生活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大學教育經驗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變因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는 일이 필요함을 示唆한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Starratt가 제시한 人間的 教育課程을 중심으로 大學教育內容의 分析可能性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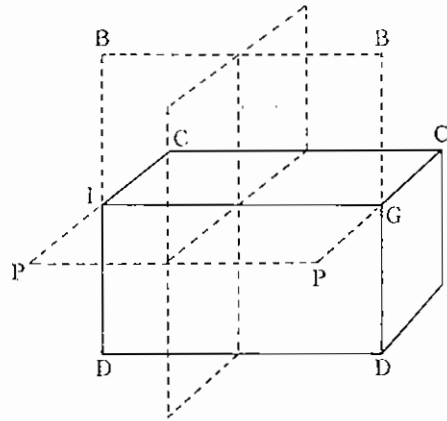
Starratt는 人間的 教育課程의 基本理論構造로서 세 가지 次元을 상정하고 있다.

첫째로 活動의 目的을 감상이나 기쁨을 추구하는데 두는 개인의 主觀的 世界, 즉 B認知(B cognition)를 탐색하는 활동과 활동의 목적을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데 두고 客觀的인 關係를 강조하는 外的 世界를 탐색하는 활동, 즉 D認知(D cognition)를 양극으로 하는 제 1의 次元이다.

둘째로 활동의 목적을 개인 自身을 이해하는데 두고 個人的 意味(Personal meaning)를 탐색하는 활동과, 활동의 목적을 外部世界를 아는데 두고 文化적으로 정의된 의미(Culturally defined meaning)를 탐색하는 활동을 양극으로 하는 제 2의 次元이다.

셋째로 활동의 목적을 깊은 수준의 對話와 親友關係를 유지하는데 두는 個人的 活動(Individual activity)과, 활동의 목적을 集團的 目的을 달성하는데 두는 集團活動(Group activity)을 양극으로 하는 제 3의 次元을 들고 있다.

그는 이들 세 次元을 기초로 하여 <그림 1>과 같이 積육면체의 한 面의 중심인 G를 시발점으로



<그림 1> 인간적 교육과정의 모형

로 하는 G—I를 한 邊으로 하고 중심이 G를 지나는 C—P를 다른 한 邊으로 하여 D—B가 이들 양 邊의 交叉點인 G를 지나는 높이로 하고 I—G의 양극의 중심을 지나는 點을 2등분한 積육면체를 人間的 教育課程의 模型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모형에 따르면 大學의 教育經驗의 下位變因을 GCD對 IPB, GCB對 IPD, GPD對 ICB, GPB對 ICD의 8개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준다 (위의 세 次元에서 제시된 6개 變因의 첫자를 따서 記述한 것임. 예를 들어 C는 Culturally defined meaning, P는 Personal meaning임).

이들 下位變因의 活動內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3차원의 활동을 기초로 하여 언어로 기술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GCD는 강의실에서 集團活動을 통하여 文化的으로 정의된 學問을 학습함으로써 問題解決을 하는 활동이라고 기술할 수 있다.

위의 Starratt의 人間的 教育課程模型은 첫째로 종래 대학교육에서 部分的인 教育活動을 전체로 보는 오류를 시정하도록 돕고, 둘째로 대학의 教育計劃下에서 조직된 教育內容이나 學生生活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도우며, 셋째로 종래 教育計劃에서 GCD와 ICD가 주축이 되었는데 기타 소홀히 되거나 제외시켰던 變因들 특히 學生들이 자신을 알기 위한 個人的 意味의 탐색과 自己充足을 위한 主觀的 世界의 탐색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고,

네째로 學校教育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極頂的 經驗을 하도록 助力할 수 있는 觀點을 제시하여 攄으로써 教育計劃에서 보다 폭 넓은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이 模型은 大學內 學生活動을 분석하는데 종합적인 觀點을 제시하여 主므로 大學生活指導와 教科指導面의 統合을 위한 理論으로 活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Ⅲ. 學生活動과 그 指導計劃

大學生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대학의 教育內容을 통하여 前項에서 논의한 文化的으로 정의된 의미와 個人的 의미를 추구하는 活動을 하고 D 認知와 B 認知活動과 集團의 活動과 個人的 活動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복합적인 活動을 하게 된다.

그런데 文化的으로 정의된 의미와 個人的 의미를 추구하는 活動은 社會의 理念과 價値에 의하여 그 妥當性이 정해지고, D 認知와 B 認知活動은 조직된 知識에 의하여 결정이 되며, 개인적 및 집단적 活動은 學生對 學生, 學生對 教授와의 相互作用과 개인의 欲求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學習過程을 통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이들 觀點은 구체적인 學生活動과 그들 活動을 통하여 수행해야 할 課業과 누가, 어느 때, 어떻게 지도해야 하느냐 하는 學生指導計劃을 제시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本稿에서는 <표 1>과 같이 大學內의 學生活動을 확인하여(김무길, 1982) 人間的 教育課程模型에 따라 분류하고, 그 活動을 통하여 수행해야 할 課業과 指導計劃(장대운, 김무길, 1981)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교육내용과 대학생 활동

교육내용	활동*	과업**	생활지도계획
G C D	Orientation 참가	학칙, 교육과정, 학교시설, 교수조직 및 학생활동 등의 정보수집, 대학생활동 목적 설정 (학문연구, 인격도야, 진지한 사상 탐양, 지도자의 자질 함양)	1, 2, 3, 4
	수강신청 교과이수	진로와 교과선택의 일치, 취득학점 확인 교양교과 학습, 전공학과 학습, 기초학력 신장, 학습방법의 습득 (학습의지, 지구력, 계획적 학습, 윤택파악—정독—요점기록—암기—적용) 교수에 대한 긍정적 감정 유지, 강의목표, 학습방법 이해, 예습·복습, 학습자료의 수집 활용, 시설 활용, 교수와의 접촉의 기회 증진, 학생과의 관계 유지, 면학분위기 조성	1, 3 1, 2, 3, 4, 5, 6
	실습및 현장교육 특수교육	이론과 실재의 연결, 현장의 문제규명과 해결방안 탐색 병영훈련, 외국어학습, Computer 학습, 기타 특수교육에 참여하여 자아실현과 자아충족을 할 수 있는 기회 증진	1, 3, 5 1, 2, 3
I P B	친우관계	자아정체감의 형성, 합리적 의사소통, 긍정적 접촉, 고차적 목표 추구	1, 2, 3, 4, 5, 6
	개인상담	자아확증 및 자아실현을 위한 정보수집, 심리적 문제의 해결방안 탐색	1, 2, 3, 4, 5, 6
	경제문제해결	타인과 협의, 부직활동, 지출의 조절, 상대적 비교의 분석, 장래에 대한 낙관적 觀點 유지	1, 2, 3, 4, 5, 6
	지도성훈련	지도성 훈련을 통한 타인 이해, 집단의 목표 수행,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1, 2, 3, 5
	이성교제	이성과 자연스런 대화, 의사소통을 통한 교제의 심화, 감정이입적 사고, 타인과 협의의를 통한 문제에방과 해결, 생의 의미 발견	1, 2, 3, 4, 5, 6
	종교생활	인생에 대한 의미 발견, 인생방법 학습, 관습적 규범과 신념체계에 적용	1, 2, 3, 5

교육내용	활동*	과업**	생활지도계획
GCB	학생회 행사참여	자율활동 신장, 민주시민교육, 지도성 훈련 체육대회, 개교기념행사 등을 통하여 자아확충이나 대학문화의 습득	1, 2, 3, 5 1, 3, 5
IPD	(도서관) (전산실)		
GPD	(교과이수)		
ICB	(도서관)		
GPB	신입생 환영회 새 클 활동 봉사 활동 동문향우회 대학축제	학과의 특성 이해, 선배 및 교수와의 관계 형성, 대학생문화의 이해, 대학생 역할 수행 적성의 발견, 취미 신장, 여가 선용, 일반교양의 증진, 사회성 신장, 자기표현과 자아발견, 새로운 기술과 정보수집 지도성 훈련, 사회현실의 이해, 봉사정신 함양, 학문과 현실생활 과 연결 친목도모, 상부상조 다양한 개인의 특성 이해, 대학문화의 유형 이해, 개성의 신장, 자아실현의 기회	1, 3, 5 1, 2, 3, 4, 5, 6 1, 2, 3, 5 1, 3, 5 1, 2
ICD	신체검사 특강 도서관 진로준비 및 선택	확인된 문제의 극복, 질병의 예방, 전문인의 진료, 건강증진 전 략 습득, 운동 및 체력단련, 규칙적 생활, 합리적 영양 섭취 자아확충을 위한 기회, 새로운 관점의 수용, 인지적 재구성, 일반화 자아실현 및 자아확충을 위한 도서관 활용의 습관화, 규칙적 활용, 도서관 자료의 활용 진로견정, 직업운 통한 생의 의미 발견, 전공과 합치, 목표설 정,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교수 및 전문인과의 접촉	1, 2, 3, 5 1 1, 2, 3, 5 1, 2, 3, 4, 5

* 활동분류에서 교육내용에 중복된 것은 그 활동의 중요성에 따라 하나의 교육내용에 분류하였으나 참고로
() 내에 활동을 제시하였음.

** 과업은 다음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김무길, 박진현 (1984).

첫째로, 현재 대학교육에서 計劃的으로 학생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教育內容을 분석하여 보면 8개의 교육내용 중 GCD와 IPB, GCB, GPB, ICD의 5개 내용이다.

그런데 이들 내용 중에서 問題點을 추출하여 보면 計劃—實踐—評價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은 GCD와 GCB이고, 기타 IPB와 GPB, ICD는 個人的 恣意에 맡겨지거나 설사 計劃이 수립되어 실시된다 하여도 아직도 定型化가 되지 못한 형편에 놓여 있다. 더우기 IPD와 GPD와 ICB는 거의 大學教育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다.

둘째로, 學校教育計劃下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내용에서 어느 활동이 선택되는냐를 分析하여 보면 교육내용의 選擇은 학생의 欲求나 理念

(Ideology)에 의하여 달라지고, 大學生의 下位文化를 형성케 하는 原因이 되는데 Clark와 Trow(1964)는 그 類型을 職業的 유형, 學問的 유형, 大學生 유형과 非妥協的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그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職業的(Vocational) 類型은 25.2%가 되는데 이는 職業準備에 몰두하는 학생들이고, 學問的(Academic) 類型은 21.8%로 주로 學問研究에 전념하는 학생들이며, 大學生(Collegiate) 類型은 46.6%로 주로 課外活動에 충실하는 학생들이고, 非妥協的(Nonconformist) 類型은 5.6%로 이들은 대학에서 강조하는 一般的 價値를 거부하는 학생들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 大學生 下位文化를 Starratt의 教育內容

에 따라 분류하면 職業的 類型은 ICD에 해당하고, 學究的 類型은 GCD와 ICD, 大學生 類型은 GPB, GCB와 IPB, 非妥協的 類型은 一般的 價値에 非同調的인 태도이다. 그러므로 건전한 大學生生活은 비동조적인 태도를 제외하고 職業的, 學問的, 大學生의 形態를 조화롭게 취하도록 지도하는 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로 학생활동의 課業 내지 指導目標을 분석하여 보면 <표 1>과 같은데, 이 제시된 과업은 학생들의 活動의 면에서 보면 課業이 되고 指導의 면에서 보면 目標이 된다. 물론 學生指導의 목적은 自我實現이나 自我擴充에 두고 <표 1>에서 제시한 이들 내용은 구체적인 目標이 된다. 學生指導에서 학생들이 그들에게 부과된 教育內容, 즉 活動을 통하여 이들 目標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학생들의 欲求와 과거의 습관이나 學習결손으로 인하여 否定的인 方向으로 나아갈 때 이를 확인하여 指導할 필요가 있다. 한 예를 들면 서클활동에서 제시된 과업은 서클에 가입하여 自己의 適性的 發見이나 취미를 신장하고 餘暇善用을 하며 一般教養을 증진하고 社會性を 신장하며 自己表現能力을 기르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획득하는 등의 目標達成을 이루는 일이 필요하다. 만일 自我實現이나 自我擴充을 위한 목적에 위배되는 불온서클에 가입하여 學生行動主義者(Student activist)로서 활동을 한다면 이는 指導對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다 科學的인 學生指導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그와 같은 課業을 수행하지 못하는 原因도 규명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指導計劃을 수립하는 일이 요청된다.

이때 문제의 原因糾明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은 生物-社會心理的 要因을 동시에 분석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 下位要因들을 참고로 아래에서 고찰하고자 한다(Richmont & Lustman, 1950; Mathewson, 1962).

- ① 生物學的 要因에서는 遺傳的 素質과 器官의 發達成熟의 2개 변인이고
- ② 心理的 要因에서는 父母 子女간의 相互作用, 自我概念, 情緒的 要因, 欲求, 父母의 役割, 對話의 對象, 認知的 要因, 能力伸張의 8개 변인이며

③ 社會文化的 要因에서 學校教育의 條件, 社會文化的 條件, 同僚集團, 宗教, 價値와 住居 등의 6개 변인이다.

앞에서 예를 든 學生行動主義者들과 관련된 원인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추출하여 보면 생물학적 요인은 관계가 낮고 주로 社會-心理的 要因과 관계가 높다. 學生行動主義者들의 心理的인 면의 특징은 가족간에 문제가 있고, 現實否定的이거나 絶對와 理想을 추구하는 認知的 特性을 가지고 있으며, 不安과 排他적인 情緒的 문제를 가지고 있고, 能力伸張을 위한 學習에 소홀하다. 社會文化的인 면에서는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에서 根據와 理由를 기초로 한 教授나 訓練의 機會를 심화시키지 못한 학교교육의 결함과 관련이 있고, 社會문화적으로 理想의 歪曲을 봉쇄할 수 있을 정도로 社會가 발달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되며, 또한 同僚들 중 理想서클에 가입한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主義·主張이 自身과 社會의 존엄성, 통합성과 生存을 고려치 않는 價値에 기초를 둔다(김무길, 박천식, 박승기, 1984).

다시 말하면 學生指導의 目標分析을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生理-心理-社會文化的 背景을 탐색하여 현재 부과된 課業遂行上의 문제가 되는 原因을 규명하고 가능한 모든 對案을 동원하여 지도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로 大學生 指導計劃 樹立을 보면 오늘날 生活指導戰略을 수립하기 위하여 강조되는 점은 생활지도에서 體制接近理論을 적용하는 일이다(Shaw, 1973). 이 체제접근이론은 體制計劃의 단계에서 문제를 규명하고 課題決定과 解決對案을 탐색하며, 問題解決의 단계에서 解決戰略選擇, 實行과 結果의 評價·修正의 과정으로 구성이 된다. 이와 같은 體制接近理論을 生活指導計劃 樹立에 적용한 Shaw는 어떤 學生을, 누가, 어떤 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道具나 機能을 가지고 어느 시기에 指導해야 하느냐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 生活指導의 體制로 분석하여 그는 생활지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要素들은 첫째, 生活指導目的 遂行의 단계를 一般的 豫防, 早期確認 및 處置, 診斷과 治療의

단계로 구분하여 구체화하고, 둘째로 指導對象을 一般豫防에서는 單位學校 學生全員이 되고 조기확인 및 처치 및 진단과 치료의 단계에서는 각각 選擇된 學生을 지도하며, 셋째로 役割擔當者는 專門家와 一般敎授로 나누어 전문가는 精神健康 지도, 선택된 학생의 相談, 診斷과 心理治療를 하고, 일반 교수는 教育環境 개선, 特殊學生에 대한 專門家와의 協의교정과 環境療法를 통하여 指導를 심화시키며, 넷째로 목적달성을 위하여 相談, 檢査, 協議 등 적절한 기능을 선정하여 活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수립된 生活指導計劃을 그는 일반 교수와 전문가에 의한 豫防의 단계를 각각 計劃 1, 2, 일반교수와 전문가에 의한 早期確認과 處置의 단계를 각각 計劃 3, 4, 일반교수와 전문가의 診斷과 治療의 단계를 각각 計劃 5, 6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의 生活指導計劃은 종래의 體制分析을 하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 즉 斷片的인 理論을 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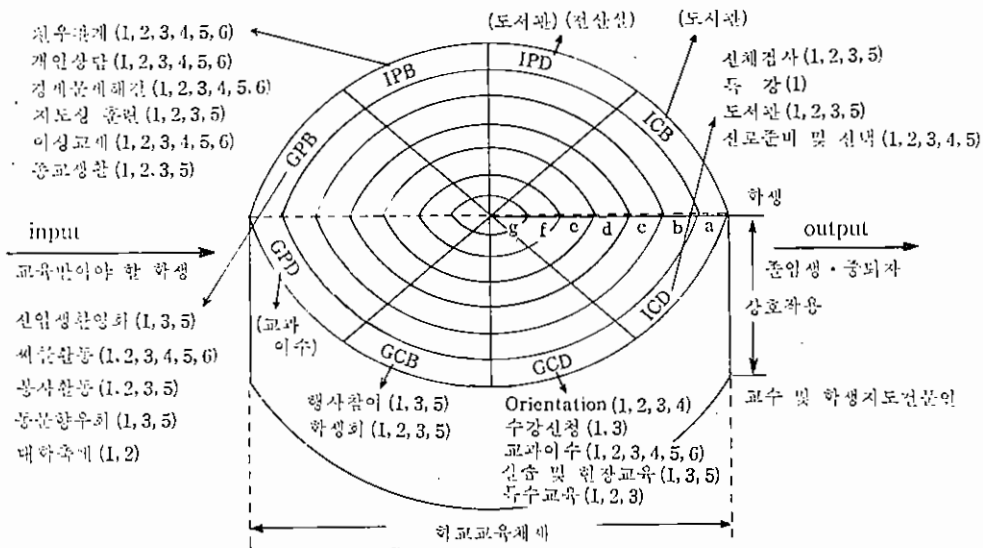
活指導理論으로 보는 점, 생활지도의 哲學的 位置가 모호하였던 점, 전체 學生生活指導에 관한 활동이 소홀히 되고 좁고 특수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점, 생활지도의 目標設定이 되지 않아 학생의 行動變容을 評價하기가 곤란한 점, 生活指導計劃 樹立에 있어서 集團的 思考過程을 거치지 못한 점, 專門性의 必要性을 도외시한 점, 생활지도의 役割分擔이 불명확했던 점 등을 극복하는 데 많은 示唆點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計劃 1—6까지로 각 活動領域에서 누가 어느 目的遂行의 段階에서 지도해야 할 것인가를 분석 제시하였는데 이는 大學生指導를 위한 具體的인 계획이 되므로 大學生指導計劃 樹立에서 活用할 가치가 있다.

IV. 學生指導戰略 樹立을 위한 模型

本項에서는 II, III項에서 논의한 내용을 綜合

<그림 2> Maslow의 이론적 접근에 의한 학생지도 요령



1. a, b, c, ...g 는 Maslow 의 욕구계 층임. a 는 생리, b 안전, c 소속, d 자존, e 자아실현, f 탐구, g 는 심미인.
2. GCD,ICD 등은 Starratt 의 교육내용임.
3. 각 교육내용별로 학생활동 뒤의 () 내 숫자는 생활지도 계획임. 1은 일반교수의 예방적 수준, 2는 생활지도 전문인의 예방지도, 3은 일반교수의 조기 확인 처치, 4는 생활지도 전문인의 조기 확인 처치, 5는 일반교수의 진단과 치료, 6은 생활지도 전문인의 진단과 치료계획임.
4. 원동은 학생과 교수나 교육내용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제를 확인하여 보다 상위욕구로 발전하도록 돕기 위한 상담모형임.

하여 大學生指導의 戰略을 수립하기 위한 대학 생 지도의 模型을 제시하고자 한다.

大學生指導模型은 <그림 2>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2>에서 원통은 學校教育體制라고 가정할 수 있는데 이 원통의 상단에 있는 각 동심원내의 a, b, ……g는 각 활동에서 課業이나 目標遂行의 과정에서 개인의 欲求次元을 확인하기 위한 Maslow의 欲求階層을 나타내고, ICD, GCD, ……., ICB 등은 Starratt의 教育內容變因들이고 이들 교육내용 변인별로 現大學의 教育計劃下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學生活動과 각 활동의 指導計劃을 괄호내의 숫자로 제시하였다. 원통의 하단은 상단의 變因들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으며 상·하단의 學生과 教授 변인들의 相互作用을 통한 教育活動이 계속 이루어짐으로써 각 학생들이 각 內容別로 보다 高次元의인 欲求充足을 하게 돕는 戰略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그림 2>의 Maslow의 理論的 接近에 의한 學生指導模型은 대학생의 教育活動의 問題糾明과 目標設定, 指導 및 評價戰略의 樹立에서 고려해야 할 事項을 추출할 수 있게 도우므로 本模型은 大學生指導計劃 수립에서 활용할 價値가 있다고 생각된다.

V. 結 語

이상에서 “學生活動과 指導”라는 大主題下的 ‘大學내 學生活動의 領域과 方向’이란 小主題를 가지고 大學生指導에서 학생의 問題糾明方法과 그 指導計劃의 실제의 方案을 논의하고자 教育課程理論을 기초로 大學 教育課程의 人間化의 觀點에서 現大學의 教育內容을 확인·분석하여 이를 現 生活指導理論과 관련짓고 Maslow學派의 相談模型을 적용하여 大學生指導戰略 수립을 위한 模型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결론적으로 現 大學生指導計劃에서 고려해야 할 內容을 提言하고자 한다.

1) 現 大學教育은 주로 GCD, 예를 들면 敎科教育에 한정되고 기타 학생들의 情意的인 년의 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어 대학교육의 根本目的에 일치하지 않는 교육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대학교육의 觀點, 즉 學問研究뿐 아니

라 학생 개인의 主觀的 經驗을 심화시킬 수 있는 教育計劃으로 改善·擴大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2) 現 大學教育에서 다양한 教育內容이 計劃·樹立되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GCD 이외의 活動은 대부분이 일부 학생의 恣意에 따라 선택되고 있으며 評價方案이 미분화되어 그 效果가 절감되고 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經驗內容을 선정하여 내용 있는 指導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結果를 평가하도록 教育計劃의 改善이 필요하다.

3) 學生指導에서 學生問題의 규명과 計劃樹立의 단계에서 大學內 모든 體制를 분석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 때 本稿에서 Starratt의 人間的 教育課程 模型과 Kirkpatrick의 Maslow學派의 相談模型과 體制接近理論 및 現 大學教育內容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바와 같이 人間行動에 관한 諸理論을 활용하여 學生들이 보다 능력 있고 좀 더 個人的 意味를 탐색하여 더욱 가치 있는 學校生活을 할 수 있도록 助力過程을 體制化하는 일이 필요하다.

4) 각 학생들은 한 사람의 科學者로서 大學生生活中에서 學問과 自己의 人生을 탐구해 간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過去가 있고 學習缺損이 있어 大學教育을 통하여 효율적인 發達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와 大學生生活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問題를 해결하도록 조력하기 위해서는 學生指導體制를 구조화하여 학생들이 大學의 發達의 挑戰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大學生生活에 전념토록 하여 보다 教育效果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參考文獻>

- 金武吉, “大學生生活指導體制改善에 關한 研究”, 全北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學生生活研究」, 10輯, 1982.
- 金武吉, 朴天植, 朴承基, “大學教育에서 이데올로기 批判教育模型開發에 關한 研究”, 全北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學生生活研究」, 12輯, 1984.
- 金武吉, 朴鎮玟, “學生指導에서 學生理解資料의 活用”, 全北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學生研究」, 15, 1, 1984.

張大雲, 金武吉, “大學生指導計劃의 體制化와 그 指導實際의 評價研究”, 全北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學生生活研究」, 8輯, 1981.

Clark, B. & Trow, M., “Some Biological and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Entering College Freshman,” *Educational Testing Service Research Bulletin*, 64-63, Dec. 1964.

Johnson, M., “Definition and Models in Curriculum Theory”, *Educational Theory*, Vol. 17, No. 2, 1967.

Kirkpatrick, J.S., “A Maslovian Counseling Model,” APGA,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7, 1979.

Mathewson, R.H., *Guidance Policy and Practice*, N.Y.: Haper & Row, 1962.

Richmct, J.B. & Lustman, S.L., Total Health, A *Conceptual Visual Aid*, J. Med. Education, 29: 23, 1954.

Shaw, M.C., *School Guidance Systems*,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3.

Starratt, R.J., “Curriculum Theory: Controversy, Challenge, and Future Concerns,” in William Pinar (ed.), *Heightened Conscious, Cultural Revolution and Curriculum Theory*, Berkeley, Calif.: McCutchan, 1974, pp. 16~35.

〈教育資料 案内〉

本協議會가 1984年度에 發刊 또는 蒐集한 資料 중 會員大學에 配布한 資料는 다음과 같다.

1. 「大學管理者를 위한 國際研修課程 參加, 主要國 大學間 協議體 및 支援機關訪問 結果報告書」
2. 「大學間 協力體制에 관한 研究」
3. 「大學教育에 있어서의 職業教育의 課題와 展望」
4. 「韓國 大學教育의 理念과 方向定立에 관한 研究」
5. 「全國 大學教授資源의 特性에 관한 研究」
6. 「國家發展에 대한 高等教育의 寄與」
7. 「1983年度 年次報告書」
8. 「大學行政管理의 理論과 實際」
9. 「우리나라 大學의 外國 大學과의 姉妹結緣 現況」
10. 「大學間 協力體制 開發에 관한 세미나」
11. 「韓·美 大學總長세미나 論叢(國文)」
12. 「大學評價의 發展方向 摸索을 위한 세미나」
13. *Peterson's Guide to Undergraduate Study '83*
14. *An Assessment of Research-Doctorate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Humanities)*
15. *An Assessment of Research-Doctorate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and Behavioral Science)*
16. *An Assessment of Research-Doctorate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Engineering)*
17. *An Assessment of Research-Doctorate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Math. & Physical Sciences)*
18. *An Assessment of Research-Doctorate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Biological Sciences)*
19. *An Assessment of Research-Doctorate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ssessment of American graduate Programs)*
20. *Inter-institutional Cooperation in Higher Education (English)*